

신앙 성장 시리즈 17

어떻게 하면 자신에 대해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How Can I Feel Good About Myself?

한국 오늘 의 양식 사

차례

발행인의 글 / 김상복 목사.....	4
1.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7
2. 자긍심이란 무엇인가?.....	11
3. 문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15
4.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	17
5.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25
6. 나의 인간 본성의 척도는 무엇인가?.....	33
7.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	43
8. 나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가?···	51
9. 스스로를 돕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53
10. 처음 시작	57
11.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61

어떻게 하면 자신에 대해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자신에 대해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편안합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 편안치 못한 사람은 역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도 늘 편안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좋은 생각과 느낌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신에 대해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평화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사랑이 모자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도와 줄 수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신의 느낌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현실감 있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삶의 만족은 더 큼니다.

이 소책자를 읽는 사람마다 자신에 대한 좋은 느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긍심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깨달음을 통해 삶의 결정적인 변화를 체험하며 밝은 미래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 10월
김 상 복 목사

어떻게 하면 자신에 대해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나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둡고 괴로운 허무함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감의 부족이나 열등감, 적응하지 못하는 성격과 같은 문제로 계속 고민해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받을 것과 보여 줄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소책자는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의 인간적 갈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리고 RBC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자료와 평가를 통해서 작성되었습니다. 론 채드윅과 팀 잭슨의 도움에 특별히 감사 드립니다.

—마틴 디 한 2세

1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한가지 추측을 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사실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바로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이 중요하다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기 원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당신은 자신에 대한 의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머리 속에 가득 들어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보내는 남들의 시선이나 비난에 예민합니다. 남들이 기회만 있으면 당신을 무시하려 들지나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기회만 있으면 당신을 따돌리지나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제외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신의 내면을 당신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볼 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싫어한다면 누가 당신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는 집요하고 고통스런 허전함을 채워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남들로부터 받기에 앞서, 당신 자신이 먼저 좀 더 멋있게 보이고 더 잘 행동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당신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 할지라도 당신 자신 외에는 공허를 채워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설령 당신이 대단히 매력적이거나 어마어마한 부자이거나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혹시 남들이 단지 당신의 외모나 평판이나 재산 때문에 가까이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술가나 운동 선수, 또는 천사의 높은 권능을 가진 사람으로 존경을 받더라도, 그러한 “은

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 동안 받아 온 주위의 인정과 사랑도 잃지 않을까 걱정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신에 대해 만족하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습관적으로 영똥한 곳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의 대상임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어야만 보람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 속 깊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품어 주심을 깨달을 때, 곧 우리가 마땅히 놀라운 기쁨으로 그 사실을 알 때에 비로소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발 뒤로 물러서서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자부심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이유를 알아 봅시다. 여기서 잠깐 멈추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우리의 내부를 우리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 삶의 이런 민감하

고 고통스런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해 보다 더 좋은 느낌을 갖도록 도와 주실 뿐 아니라 정확한 자아상을 계발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2

자긍심이란 무엇인가?

자긍심, 자부심, 자아상, 자기 사랑 같은 용어들은 모두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데 쓰이는 말들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적절하거나 부적절하게, 호감이 가거나 싫은 느낌을 갖게, 사랑스럽거나 혹은 그렇지 않게, 가치있거나 무가치하게 느끼도록 만들어 주는 자신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느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표현해 준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한 소중함과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었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무능하고 필요없는 존재로 느끼게 해 주었다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여기게 될 것입니다.

- 나는 실패자라는 느낌이 든다.
- 나는 아무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 나는 내 모습이 싫다.
- 어느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잘못된 자긍심은 일종의 불행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거지처럼 생각하면 거지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을 초라하다고 생각하면 초라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초라한 자아상을 갖고 있으면 대인 관계나 도전해야 할 일 앞에서 뒷걸음치고 말 것입니다. 자신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긍심이 부족하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일반적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당신은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자긍심을 얻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긴다면, 즉 당신이 누구이며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면, 자긍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올바른 자긍심을 갖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할 때에 당신이 스스로를 인정하도록 도와 줄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더욱 쉽게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방어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기보다 그들을 사랑하는데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만 당신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갈 6:1-4).

가장 올바른 자긍심은 정확하고 적절한 인식에서 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자기 확신과는 다릅니다.

- 나는 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
- 나는 내가 얻는 모든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다.
- 나는 보통사람들보다는 낫다.

올바른 자긍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말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뜻대로 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3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것은 초라한 자아상 못지 않게 나쁜 것입니다. 그것은 파괴적이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공정하지 못한 요구를 하거나, 자신의 문제에 자기 혼자 대처해 나갈 능력이 있다고 잘못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3

문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열등감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종종 발생합니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손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출 20:5). 오늘날에도 어려서부터 부모들의 물질 만능주의, 알콜 중독, 마약, 육체적·성적 학대, 간음, 이혼 등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애써서 용납하려 하여도 방종, 학대, 태만 등으로 그들의 진정 필요

한 것들을 무시해 버린 이기적인 부모에 대한 기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에 거부당하는 상처를 얻은 사람들은 일생 동안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지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 부모에게서 시작된 것이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또 다른 아픔을 피하기 위해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또 다른 좌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울증이나 약물 중독, 문란한 성관계, 신경과민과 같은 어둠의 세계로 도피하려고 합니다. 또다시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정신적으로 유익한 교제를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도피의 고통은 자신에 대해 더욱 초라하게 느끼도록 만들고 결국 자신감은 점점 더 없어지게 됩니다. 부정적 느낌이 강해져서 다시 더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도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역설적이지만 성경은 우리가 때로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에 앞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4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자 아 상	
인간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자신을 높여라	자신을 낮춰라
자신을 위해 살아라	자신을 죽여라

자신에 대해서 좋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자신에 대해 좋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처럼(갈 6:4) 나쁘게 느껴질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약 4:7-10).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신을 사랑해야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어떤 점들은 싫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아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인간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고후 10:12, 18).

인간적 기준에 의한 자아상

오늘날 소위 문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최상의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신 있게 행동하십시오. 자신을 믿고 자신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십시오. 당신의 능력껏 멋진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 자신을 돌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당신을 돌보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모두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아상에 대한 인간적 접근 방식도 나름대로 상당히 옳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잘못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적으로만 해결하려는 생각입니다. 시종일관 자기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 하면 결국 인간은 자신을 자기의 신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자부심의 관점에서 보면 건전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만일 사람이 자신을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형상의 연장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그가 되고자 하는 그 어떤 것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항상 좋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할 때마다 모든 결과는 잘못된 것이 됩니다. 자기 사랑, 자기 존중, 자기 인정, 자아 의식에 대한 모든 시도들은 그럴듯하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오래지 않아 실패로 끝나 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자아상

하나님의 접근 방법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의 궁극적 행복에 대하여 신약성경은 1)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2)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3)자기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기 전에 자아상에 대한 이러한

접근이 얼마나 예리하고 도움이 되는지 살펴봅시다. 이 방법은 처음에는 자신감을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과 정반대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문제를 우리를보다 훨씬 더 정확히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증상들을 감춰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아상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알고 계시며 그것을 진단하신 다음, 우리가 그를 믿고 의지하면 결국에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자신을 사랑함

성경은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 22:39)고 말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가정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결혼에 대해 상담하면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찌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엡 5:28-29)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이 이것을 입증합니다. 우리는 자연

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위해 먹고 입으며 보호하면서 우리의 육체를 돌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혹은 좌절하거나 화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지나칠 정도로 돌보기 때문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속에 분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일들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건 그렇지 않건 아무런 상관이 없
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외모나 무능함을 탓하는 이유도 바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자신이 속이 상하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을 것이며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 보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죽어 버리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생각을 달리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한편

으로 자신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신을 미워함

우리 자신을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큰 귀나 비뚤어진 코나 짧은 다리를 미워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외모나 뺨뺨한 머리카락, 서툰 허둥대는 태도 같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매우 심각하고 우리 건강에도 위험한, 타락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자기 중심적 태도를 멀리하기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 내면의 성향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1-24)

이 책이 자긍심에 대해 토론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방법은 우리에게도 납득할 만한 것입니다. 그는 새 집을 짓기 전에 그 자리에 있던 불량 건물을 부숴야 하는 건축가와 같습니다. 운동 시합의 코치는 운동 선수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시합에 임하려 하기 전에 선수들의 자만심을 깨뜨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자신에게 의지하는 한 우리 스스로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러한 경향을 미워하고 이런 경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죽음

성경이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죽으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신에 대해 죽음으로써 자긍심을 얻는다는 말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26-27).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뿐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목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려고 해야 합니다(요12:25). 우리는 이기적 사랑, 자기의 뜻에 의한 계획, 자기 중심적 인간 관계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하나의 밑알이 썩어져야 새싹이 돌아나 듯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던 것같이 우리도 충만하고 열매맺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상과 행복함을 보호하려는 우리 자신의 노력들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이 모든 말들이 너무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삶을 주관하는데 있어서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멀리하고 없애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 되는 특권에 대해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구나 다른 어떤 것을 섬기려 하면 공허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만들어져 있습니다(전 12:9-14).

그렇다면 사람들에게는 낮은 자긍심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빨간 경고 신호가 없다면 우리는 돌이키기엔 너무 먼 길로 잘못 들어서게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의 자아상을 낮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계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5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가 치	
인간	하나님
외모	인격
두뇌	자세
부	관대함
재능	신실함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나쁜 소식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에 근거한 자아상을 갖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들, 곧 우리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을 때에는 인격의 힘보다는 외양적인 힘만을 보게 됩니다. 외양적 가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위의 환경에 적응하도록 만듭니다. 반면에 인격적 가치는 하나님께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주변 환경이나 우리의 개인적 감정보다 높은 수준이 될 수 있게 해 줍니다. 인격적 가치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에 근거한 가치

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우리 주변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의 자아상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가치들에 의해 형성될까요?

외적 아름다움	쾌락	외모
두뇌	탁월함	성격
돈	재산	풍요
체력	힘	능력

만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표현되든지간에 피상적이고 일시적이며 우리를 아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는 우리의 외모와 능력과

풍요를 다 합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외적 아름다움, 두뇌, 돈, 체력 등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해서 당신 자신에 대해 초라한 자아상을 갖게 만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에 속는 일입니다.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가치가 잘생긴 얼굴, 잘 차려 입은 몸, 약삭빠른 기지, 은행에 예금된 많은 돈 등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새빨간 거짓입니다.

아직도 많은 어린이들이 몸의 외형과 크기, 지능, 또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버려지거나 무시되고 방치됩니다. 이들은 그들 주변의 이기적이고 변덕이 심한 세상의 틀에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에 따라 자신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자신을 미워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치들은 늘 무시되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것들도 나름대로 용도가 있습니다. 부, 외모, 능력, 영향력 같은 것들도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계발하고 존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련되고 균형 감각을 잘 갖춘 사람은 나름대로 설 장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 보다 더 나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긍심의 진정한 근본은 주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보여 주시면서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면을 보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삼상 16:12)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눈은 인간의 마음을 보시는 동시에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그리고 그 느낌이 얼마나
지속되는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타락하고 멸망해 가는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찌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

와의 말이니라”(렘 9:23-24)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가치

우리가 돈을 따라 삽니까, 아니면 신실한 가치관에 따라 삽니까? 우리는 잘 보이기 위해 삽니까, 아니면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삽니까?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다른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에 있습니까, 아니면 혹은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있습니까? 단순히 환경에 따라 움직입니까, 아니면 목표와 목적과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이 처한 환경을 딛고 일어섭니까? 성품은 많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특히 우리 안에 하나님에 의해서 계발된 성품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성경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갈 5:22-23)라고 불리는 이것들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사 랑	인 내	충 성
희 락	자 비	온 유
화 평	양 선	절 제

이러한 내면적 성품(성령의 열매)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할 때

에만 우리 안에서 자라나며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우리 것이 됩니다. 1)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권리들을 포기한다. 2) 물질적 가치관에 따르라는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 3)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일치하는 자아상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의 기록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1단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단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3단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결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롬 12:1-3)

이어서 바울은 이러한 순종의 결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롬 12:4-21). 이러한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좋은 느낌을

을 가질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드러야 할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님과 주님의 가치관에 복종해야 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분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종이 되기를 더 원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당신을 사용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베푸시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십니다(9-10절). 하나님께서 인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섬기고자 할 때에 당할 수 있는 고난과 모욕을 잘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11-14절). 그분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소중히 다루십시오. 웃는 사람과 함께 웃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십시오(15절). “당신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과 기꺼이 함께 하십시오(16절). 평화롭게 사십시오. 보복하는 일을 삼가 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17-21절). 그럴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자처럼 위대하게 느껴지는지 살펴보십시오. 자신이 그분의 가치들을 덧입

음으로 위대해 보이는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이러한 영적 성장은 거쳐야 할 한 과정이자 투쟁입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 기준만 올바르게 있다면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자기 존중의 길을 걸게 될 것입니다.

6

나의 인간 본성의 척도는 무엇인가?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자긍심에 대해 바르게 접근하려다 보면 동전의 양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한 면은 스스로에 대해 매우 좋게 느끼도록 합니다. 뒷면은 매우 나쁘게 느끼도록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면을 무시한 채 한쪽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현실과 동떨어진 자아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존엄성과 타락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문제의

심각성이 과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에 의한 인간 본성

많은 사회학자들이 인간은 악한 성품을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환경에 의해 타락한다고 합니다. 비록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은 우리 선조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들은 마치 깨끗하고 하얀 결백이라는 종이 위에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새겨진 글자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깨끗한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속한 사회와 교류하기 전까지는 윤리라는 말이 필요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인간적 기준은 창조주의 원래 설계하신 목적과 그분이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는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인간 본성

중립적인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과학 교과서보다 훨씬 더 호의적이면서 동시에 훨씬 더 비판적으로 인간 본성에 대해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극치로서 인간의 존

엄성을 살펴보고 그 다음 실패한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총체적 타락성을 살펴봅시다.

인간 본성	
사람	하나님
목적없이 태어남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심
죄없이 태어남	죄를 갖고 태어남
기본적으로 선함	근본적으로 악함
물질로부터 진화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됨

인간의 존엄성

성경에 따르면 인간 본성은 존엄성이라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점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인간의 특징입니다. 까마귀, 악어, 그리고 귀뚜라미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을 알고 즐기며 따르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들을 위해서만 예비된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에서 기르는 개보다 훨씬 더 귀중하고 (이따금 개가 인간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때도 있지만), 강이나 바다나 산보다 훨씬 더 소중하며 억만금의 돈보다 훨씬 더 가치있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를 디자인한 디자이너의 명성과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 때문에 우리 중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의 영원한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시139:13-16)

이러한 것이 우리의 자아상에 미칠 영향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파악하고 계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머니의 태 속에서 형성하신 바로 그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카소, 렘브란트, 롤스 로이스, 켈빈 클라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다는 사실을 말해 줍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의 무한하신 창조주에 의해서 디자인되었습니다.

우리는 피카소, 캐딜락, 켈빈 클라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상표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갖고싶은 외모나 능력을 갖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흑인이거나 동양인이거나 미국인이거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하나님을 알고, 영광을 돌리며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인류는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때문에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결국 나쁜 것을 좋다고, 좋은 것을 나쁘다고 느끼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성적 타락과 물질적 사치에 현혹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공격적이고 신경질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들을 하나 하나 입증하고 있는 셈입니다(롬 1-3). 각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집에 악마도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롬 7장).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동기, 그리고 마음속의 가장 깊은 의욕에 달라붙어 혹

처럼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물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그것이 우리의 자아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면 스스로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보다 더 잘 되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줍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뒤튼어진 내면이 문제 해결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술 취한 왕이나 타락한 공주가 한 발은 포장도로 위에, 다른 한 발은 길옆 진흙탕 속에 빠뜨린 채 비틀거리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자기 자신만을 의존하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긍심을 점점 더 잃게 만드는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묘한 자기 중심적 욕구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싫다고 세상을 향해 거부의 손짓을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외모, 능력, 인간 관계, 환경 등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지금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자신을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크게 신장되

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타락이 우리 자신을 기만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긍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은 상처입은 자존심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가득 찬 자존심이 마치 낮은 수준의 자아상인 것처럼 속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빌의 예

빌은 자기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매우 나쁜 자아상 때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런 느낌을 갖게 된 것은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빌은 어렸을 때 정서적, 언어적, 육체적, 성적으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가정의 문제에 사로잡혀 가족의 타락에 함께 빠져들게 되었고 결국은 그에게 방종과 분노만 남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빌에게는 낮은 자아상을 갖게 된 그럴 만한 많은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이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초라한 자아상 뒤에는 그가 감추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 너무 소홀히 다루어졌고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면서 심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고통과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는 일에는 다시 도전해 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남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하고 남을 돕는 일에 더 관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함의 울타리 안에 숨어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더 이상의 실패와 거절당할 가능성의 위험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때로 낮은 자아상은 왜곡된 자만심,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인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길 회피하는 비뚤어진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타락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거절당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랑하고 또한 당신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믿었다가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 안에서 나의 안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솔직히 나는 이것을 감당하기 힘든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보호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 나를 또다시 거부당할 상황에 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입니까? 빌이 느끼는 감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고통스런 낮은 자아상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을 신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타락한 본성을 보여 주는 한 예입니다.

7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중요한 사람	
사람	하나님
내가 해답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해답을 주신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나 자신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의 타락과 열등감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것들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최악의 적을 물리치시고 우리 각자의 궁극적인 위상을 세워 주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해방시키고 보호하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신 후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의 용서로, 우리의 연약함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타락은 그의 선하심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과거, 새로운 거쳐, 새로운 직업을 주실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이 새 삶과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자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새로운 자아상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자신에 넘치고 도전적이며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자아상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차이점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자기 자신이 우리의 삶에서 가

장 중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해답은 자기 안에 있습니다. 배척과 멸시 그리고 불공평을 극복하고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찾아보려면 자신 속의 밑바닥까지 훑어봐야 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가진 것들은 당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취하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믿고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최고입니다. 뒤쳐져 있지 마십시오.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스스로 기회를 만드십시오. 누가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학대받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당신이 꿈꾸는 것보다 낮은 수준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마땅히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변화시키기 위한 용기와 강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가장 정확한 자아상과 가장 고귀한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과 당신을 통해 하고자 하시며 또한 하실 수 있는 일들로 인해 당신은 당신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놀라운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엡 3:14-21).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그와 되돌릴 수 없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고 그는 우리 안에 계시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과거를 갖게 됩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와 함께 묻혔고 그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났습니다(롬 6:1-14).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갖게 됩니다(골 3:1-4).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요일 5:1)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의 상속자들입니다(롬 8:32).

너무나 듣기 좋은 소리라 사실처럼 들리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싸울 수도 이길 수도 없는 전쟁을 예수께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용

서, 우리의 희망, 우리의 보호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는 영원 무궁히 우리의 삶에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중요하고도 가장 소중한 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당신은 속으로 차라리 아버지의 허락, 어머니의 애정, 자녀의 존경, 무조건적인 친구의 사랑을 받는 편이 더 낫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을 창조하시고 당신을 위해 돌아가신 분과 그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므로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관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경청하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너무 이론적이고 현실성 없는 아주 먼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좀 더 가까운 집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당신은 하찮아 보이는 존재라고 합시다. 아버지는 술주정꾼이고 어머니는 가출했고 형제들은 당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정에 당신이 있다고 합시다. 게다가 당신은 가난하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며 평

상시에도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 한다고 합시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요? 당신이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믿는다면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하십시오. 당신의 제한된 환경의 숨막히는 공기 속에 당신의 현실을 가두지 마십시오. 인생은 당신의 환경보다 더 큼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환경보다 더 큼니다. 그의 영원함도 훨씬 더 큼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십시오. 그가 우리의 삶이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최상의 것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그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갖고 있다고 말해 주는 이 세상 최고의 권위인 성경을 믿으십시오.

- 새로운 과거(롬6:1-6)
- 새로운 미래(롬8:18-32)
- 새로운 이름과 신분(행11:26)
- 새로운 생명(고후5:17)
-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요일1:1-4)
- 새로운 직책(엡6:5-9)
- 새로운 양식의 근원(빌4:19)
- 새로운 가족(요일3:1)
- 새로운 유업(엡1:11)
- 새로운 확신(히13:5)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이나 그와 우리의 관계, 그의 가족으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주님의 사랑은 절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러한 위치는 새로운 자아상뿐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기본이 됩니다. 그것은 인간 관계에 있어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시도를 위한 기초가 됩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우리는 좋은 느낌과 감사가 넘치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삶에 대해 도전할 목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향유하는 모든 풍요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엣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골 3:1-4)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나 혹은 언급하지 않는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엡 4:17-32).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의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행하고자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의뢰할 때에만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고후 3:5, 빌 4:10-13).

그리고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투쟁입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많은 기회들을 만나는 긴 행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믿느냐 아니면 우리의 느낌이나 친구나 적이나 환경이 말하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8

나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가?

사람이 마음 속으로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긍심에 대한 우리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장애들을 극복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중요함을 인정하고, 사물을 다르게 보며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의 중요함을 인정하더라도 이 같은 생각들은

대부분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와 관계된 사람은 긍정적인 자부심을 위해 엄청난 기본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에게 순종할 때 비로소 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가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원하시면 나는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의지하여 살면 그가 원하시는 대로 나의 방해물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함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이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20년 후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실은 내일도 보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겸손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게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올바른 마음 자세입니다.

9

스스로를 돕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다음의 설문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제자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특정한 한 가지 주제를 공부하기 전에 이 질문들을 논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1. 자긍심이란 무엇입니까?
2. 자긍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3. 자긍심에 대한 인간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4. 성경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고전 4:1-4, 고후 10:12,18)
5. 자신에 대해 늘 긍정적으로 느끼는 일이 올바른 일입니까?(약 4:7-10)
6.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까?(마 22:39)
7. 어떤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해야 합니까?(롬 7:21-24)
8.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으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까?
9. 어떻게 하면 낮은 자아상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1. 초라한 자기 가치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2.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가치 기준을 적용합니까?
3.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삼상 16:7)
4. 우리는 우리의 가장 큰 보람을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렘 9:23,24)
5. 우리는 올바른 자아상을 계발할 수 있습니까?(롬

12:1-3)

6. 하나님의 가치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들 수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롬 12:4-21, 갈 6:1-4)

인간 본성의 척도는 무엇인가?

1. 사회학자들은 인간 본성을 어떻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까?
2. 당신은 어떤 점에서 성경이 사회학자들보다 더 호의적이길 기대합니까?
3. 당신은 어떤 점에서 성경이 사회학자들보다 더 비판적이길 기대합니까?
4. 무슨 근거로 성경은 인간의 고귀함을 인정하고 있습니까?(시 139:13-16, 히 2:6-8)
5. 무슨 근거로 성경은 인간의 타락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롬 1:18-32, 3:10-18, 7:7-24)
6. 완고한 개인주의 성향과 자기 충족이 우리의 자부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7. 실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리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롬 7:24-8:17)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1. 인간적 기준에서 보면 누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2. 우리는 “우리의 중요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까?
3.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엡 3:14-21)
4. 우리는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고후 5:17, 요일 5:1)
5.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운 과거(롬 6:1-6), 새로운 미래(롬 8:18-32), 새로운 신분을 주실 수 있습니까?(행 11-26, 갈 2:20)
6.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운 직업(엡 6:5-9), 새로운 양식을 주실 수 있습니까?(엡 1:11, 빌 4:19)
7.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10

처음 시작

자공심에 대한 이러한 접근이 도움이 되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 이 소책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는 RBC 신문에 실렸던 자공심에 관한 기사를 읽고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내 왔습니다.

“당신의 기사는 내가 일생 동안 느꼈던 문제의 근원에 대해 내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그 어떤 기사들보다 더 많은 것을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심리학 서적도 뒤져 보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도 해 봤습니

다. 그리고 대학에서 심리학 과정도 들어 보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처음으로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신경과민으로 저주받았다고 느꼈었고 너무 쉽게 남을 비난하였습니다. 나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 특히 나의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몹쓸 짓을 한 것인지 압니다. 나는 나의 이 문제가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나의 추측으로, 이미 나타났다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나는 나의 자긍심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나는 구주 안에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일 년 전에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돌보심에 나 자신을 다시 맡김으로써 자신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주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한 결과 낮은 자아상의 문제를 덜 겪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행복이라는 단어는 내 삶을 인도하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점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말한다면 거짓말하는 죄를 짓는 것일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나의 자긍심과 싸우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나는 구주 안에서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에게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새로운 창조물로 나를 빚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더 긴 과정이 될지 모르지만 당신의 자긍심에 관한 기사처럼 주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 아십니다. 나는 이 사실을 늘 상기하면서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리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죽는 것, 즉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나는 종종 나의 자존심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껴지면 자존심이 목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싸우고 불평하고 소리치며 울부짖고 싶어집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나는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심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종종 나의 자존심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자존심이 목 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면 싸우고 불평하고 소리치며 울부짖고 싶어집니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에게 시작된 건디기 힘든 일들을 주님이 맡으셔서 완전히 180도 돌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 따스한 사랑이 자라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미소를 잃지 않고 나보다 오히려 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는 이 일이 앓은뱅이에게 일어나 침상을 메고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신 그분의 상담과 사랑과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이 한 사람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11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적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아상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목적과 능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적들’을 우리의 친구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자기 확신, 자기 충족, 자기 만족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를 위해 하

도록 만드십시오. 당신의 약점을 당신이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데 써보십시오. 그분만이 당신이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는 데 필요한 선하고 영원한 이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과정이 너무 단순해 보인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을 인식하는 것이 그 어떠한 순간적 회개의 고통보다 훨씬 값진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가치들을 축적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것을 그분께 시인하면 당신은 곧 마음의 커다란 평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설계자요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그가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그가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가 죽은 것은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도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의 부활을 그들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의 첫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신분, 새로운 인정,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1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감, 고통, 슬픔에 잠길 때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2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즐거운 신앙생활 안내

3 오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죄 용서하시는 하나님

4 복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참 행복의 설계

5 균형있는 가정생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가정생활

6 왜 살아야 하나?

삶의 의미와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하루하루를 뜻있게 사는 길

7 행복한 결혼생활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공적 결혼의 10가지 요소

8 남자다운 남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남자! 그 모습대로 완성되어 가는 길

9 여자다운 여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자의 모습!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인의 삶

10 걱정없이 살고 싶다

왜 걱정합니까? 걱정없는 삶의 성경적 해답

11 다시 찾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사람들이 활력을 회복하는 길

12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다섯 가지 기본원리

13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만나 하루 하루 성장하는 삶의 지침서

14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평생드리는 귀중한 예배, 그러나 바로 알아야 할 예배의 안내

15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때 얻는 부모의 영적 평안함

16 결혼의 약속

결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행복한 결혼의 4가지 단계

구독신청 : 한국 오늘의 양식사 (031) 780-9565~7
 선교현금 권당 600원 (제작비와 우편요금)

「신앙성장 시리즈」구독신청 미션교헌금안내

신청 및 현금자	성명 주소	전화																
		(우편번호 :)																
발 는 사 람	성 명 주소	전화																
		(우편번호 :)																
	출석교회	직분																
	시리즈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신청부수																	

■ **선교헌금 안내**

『한국 오늘의 양식사』는 『신앙성장 시리즈』를 통하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 책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제작비(권당 600원, 운송료 포함)를 도울 선교 헌금을 보내주시면 도서 발송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구매번호 <예금주 : 할렐루아선교원>**

외환 : 026-13-33750-7 한빛 : 132-05-108980 국민 : 097-01-0199-703
 서울 : 16301-1886909 우체국 : 012773-0026681 제일 : 107-10-109840
 분협 : 001-01-214911 조흥 : 308-01-137748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2 『한국 오늘의 양식사』 우편번호 : 463-816
 전화(031)780-9565~7 FAX (031)780-9569

헌금입금은행 : ()은행

(별도의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절취선

한국 오늘의 양식사

■ **구독 신청과 독자 주소 · 전화변경 받는데**

전 화 : (031) 780-9565~7
 F A X : (031) 780-9569
 E-mail : odbkor@hitel.net
 인터넷 : http://www.hallelujah.or.kr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2 우편번호 : 463-816

■ **선교헌금 안내**

오늘의 양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하여 권당 450원의 제작비를 도울 선교헌금을 보내 주시면 도서 발송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구매번호 · 예금주 : 『할렐루아선교원』
 한빛 : 132-05-108980 국민 : 097-01-0199-703 서울 : 16301-1886909
 외환 : 026-13-33750-7 제일 : 107-10-109840 분협 : 001-01-214911
 조흥 : 308-01-137748 우체국 : 012773-0026681

■ **첨가본들**

발행인/김상복 편집장/김승호 고문/최태의 위원장/고정식 총무/최부용 · 이덕진 상담/김영자 관리/이종규 출판/이덕진 기획/정호관 발송/이외희 홍보/차일환 회계/이향순 제작/소망사 : 733-4242 · 팩스 : 733-4243

신앙성장 시리즈 17

이런 분들께 한말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인쇄 / 2001. 10. 5.
 발행 / 2001. 12. 10.
 발행처 / 한국 오늘의 양식사
 전 화 : (031)780-9565~7